



Esthetic grinding을 이용한 심미치료 증례

이수형*, 이근우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최근 심미수복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는 치아의 형태 이상, 공간의 문제, 배열의 이상 등을 해결받기 위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물론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치료받는 것 자체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치과 의사가 문제를 지적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치과 의사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안모 형태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자의 smile line과 치아와의 관계, anterior guidance 및 발음과 연관되는 상악전치의 길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전치부의 노출정도, midline의 대칭성, 치아 간의 proportion, proximal contact의 위치 및 incisal embrasure의 크기 등 심미적인 치아 형태에 관한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또한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평가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Esthetic grinding은 비정상적인 또는 비심미적인 형태를 가진 치아나 기존의 보철수복물 등을 받치나 새로운 보철물의 제작과 같은 aggressive treatment를 하지 않고, diamond point 및 polishing kit를 이용하여 chair-side에서 간단하게 그 형태를 수정해 줌으로써 보다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존적인 술식으로서, 이 술식의 활용은 optical illusion(착시)의 개념을 일부 응용하는 것이다.

본 증례는 치주질환으로 인해 상악중절치가 elongation된 경우, 절단부가 너무 길게 제작되어진 상악전치부 metal-ceramic bridge를 장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큰 space를 가진 상악전치부를 porcelain laminate veneer를 이용하여 수복한 경우와 같은 몇가지 증례에서 esthetic grinding를 통하여 비교적 심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